



순창경찰서, '안전띠 일상화' 교통캠페인 펼쳐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자치경찰사무)는 13일 순창중앙초교 앞에서 안전띠 착용 일상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타면착, 안전도착' 캠페인을 펼쳤다.

남원 이백면,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

남원시 이백면은 지난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이백 행복나눔센터 준공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홍보 활동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화재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 위촉

각계 기관·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 총 25명... 인구 지키기 활동 전개

고창군은 13일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구지키기 범군민 운동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고창군의 각계 기관·사회단체 대표와 공무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창군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 위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가 직접 추진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고창군 인구현황 △'고창애 주소갖기' 추진실적 △고창군의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보고와 함께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은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고창 5만 지키기' 범군민 공감대 확산,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시책 발굴 등 인구 5만 지키기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4월 말 기준 고창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만770명으로, 행정·재정·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준선인 5만 명 선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고



창 5만, 나부터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고창 5만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인구 5만 지키기는 고창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위촉식이 고창군민 모두가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병원, 사원 홍보단 '홍보미' 공식 출범

자발적 참여로 소통·공감의 메신저 역할 앞장

전북대학교병원은 병원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홍보단 '홍보미'가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사원 홍보단 '홍보미'는 여러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로 구성돼 병원의 주요 뉴스는 물론 진료·연구 성과, 건강 관련 의료 정보를 내부 직원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병원 공식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보단원들은 병원 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 의료서비스 현장 등을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해, 생생한 병원 소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병원의 비전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내부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홍보단은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텐츠로 메시지를 전달할 숏폼(진단검사의학과 분자유전진 시대, 간호부 유지현, 신경계중환자실 노현아), 사진 및 영상 촬영과 편집팀(진료행정과 영양팀 이준훈, 진료행정과 진료행정팀 최지나), 콘텐츠 개발 기획팀(전산정보과 데이터



융합팀 김민규, 간호부 58병동 최예진, 진료정보실 의무기록팀 최은영, EICU 김세린, 간호교육실 김어람), 각종 행사의 진행과 사회를 지원할 MC팀(진단검사의학과 박세린, 영상의학과 MRI실 오현일) 등에서 총 12명이 활동한다.

전북대병원은 사내 홍보단 '홍보미'가 병원 구성원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주는 동시에, 환자와 지역 주민들에게는 병원의 따뜻한 모습과 진정성을 알리는 창구로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의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친근하고 공감 가는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병원 신뢰와 호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근 기자



장수경찰서, 안전띠 착용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안전띠는 과거 80년대 고속도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전(全) 좌석 착용 의무로 변화하면서 사망률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었는데, 이에 따라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안전띠 착용 교통안전 캠페인을 장수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와 함께 안전띠 착용은 낮은 속도에서도 착용습관의 중요성과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였다.

황재현 경찰서장은 "시동을 걸기 전 안전띠를 매는 것은 일상의 습관이며 단순 승용 차량 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량 운전자들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면서 연중 전방위적으로 안전띠 홍보를 실시하고 사고다발지역에서 안전띠 단속도 병행하여 교통안전의식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경찰서, 외국인 노동자 범죄예방교실 운영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13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취업 목적으로 장수에 정착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시 통역을 활용해 기초 법률 교육과 함께 보이스피싱, 무면허 운전, 폭행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경찰서 장제파출소는 정기적으로 장제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와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날은 신진에스엠(주)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노동자 12명 다문화 가정 8명 등 총 20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치매파트너 교육 실시

진안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문민수)는 13일 진안읍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적십자봉사회 진안군협의회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이수한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은 '치매안심이웃+'로서 앞으로 진안군이 운영하는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아로마 마사지, 발 마사지 등 치매환자 정서 지원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민수 센터장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진안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중양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and their respective phone numbers.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energy-saving tips. Title: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Includes a list of 4 tips: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Includes an image of a tree and a hand holding a globe.